

목어 생존 필수품



도수 정업도량 회주

산사 생활에서도 소용되는 필수품이 적지 않다. 시내로 그것들을 사러 산을 내려가면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경적 소리가 먼저 맞는다. 경적소리는 그래도 잠을 만만해 매연은 질식할 정도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조식과 사시에는 밥당에 올라 부처님과 만났다. 초에 불을 켜고 거기에 향로를 살라 향로에 쬐는다. 재질이 좋지 않아서 인지 매캐한 향내가 제 역할을 망각한 듯 법당의 공기를 금세 오염시키고 만다. 향에서도 불심은 없고 상술만 타오른다.

수돗물이 음용수의 자리를 내놓은 지는 벌써 오래된 일이다. 관계 공무원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시려 들지 않는다. 그냥 허드레 물로나 쓸 뿐이다. 그래서 산사의 이른바 약수가 인기가 높다. 그러나 산사의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마실 수도 없다. 검사결과 오염된 약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니 당연지사다.

세상은 뒤숭숭해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다. 따스한 햇살이 어느새 들꽃들을 키워 놓았다. 절 뒤쪽에 빈터가 있어 텃밭을 일구었다. 땅도 죽은 땅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산사 주변의 땅은 제법 살아 있다. 우선 땀생명의 생존에 기본적인 필수적인 생존 필수품만이라도 하루속히 되살려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군속마

도선사 신도대기소 닭요리 사건 사찰직원 사칭 노숙자들로 밝혀져

지난달 15일밤 도선사 신도대기소에서 닭을 끓여먹은 사람들은 사찰직원을 사칭한 노숙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선사 박기숙 불자는 3월17일 도선사 홈페이지에 "신도대기소에서 도선사 직원이라며 닭을 끓여먹은 광경을 보았다.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내용이 본지 414호 '장군속마'에 실리면서 도선사는 자체조사를 펼친 결과 "인근의 노숙자들이 도선사 직원을 사칭하고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밝혔다.

도선사는 3월 27일 홈페이지에 답글을 올려 "보살님께서 목격하신 불미스러운 일에 도선사의 직원은 개입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며 "이를 계기로 도선사의 주변을 더욱 맑고 깨끗이 정리하여 기도하시는 분들께 눈살 찌푸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사에서 종일 무료배식이 이뤄지면서 노숙자들이 사찰근근에 진출을 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촌 어귀에 작은 집을 짓고 들어온 지 3년째다. 사람 만나는 일을 즐기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들어 온 토굴이다. 내 나름대로 정한 규칙에 따라 정진하고 먹고 자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싫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어떤 사람이 방 문 위에 '두산선실(大山禪室)'이란 현판을 걸어 주어 꼼짝없이 내가 정한 규칙이나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분명한 구속이다. 어느 정도의 구속도 없이 살 수는 없다. 다만 스스로 구속되는 구속이 있고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부릴 수 있는 구속이 있다.

지금 한국에 와서 '검기명상'과 '화'를 잠재우는 강연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탁났한 스님은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쳐들어오는 구속을 조용히 잠재우고 스스로 평화로워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생명의 존엄과 인류의 평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며 전국을 누비고 있는 그의 행보는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나는 한 수행자로서 그의 행보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와 동시에 한국 땅에 사는 승려로서 느끼는 일련의 자괴감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는 수없이 많은 고승대덕들이 있고 1600년의 긴 역사를 거쳐 다져진 값진 수행전



불자 세상보기

진철 전 마곡사 주지

탁났한 스님 통해 한국불교 읽기

통이 있다. 그런데 환경, 전쟁, 북핵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 시점에서 탁났한 스님은 이 땅에 거대한 풍경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국의 고승대덕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큰스님들이 황금 같은 침묵으로 토해내는 '무언의 설법'을 듣지 못하는 대중의 우매함을 아쉬워해야 할까? 그렇다 하면 '화' 내지 않는 평화로움을 얘기하는 저 이방의 수행자에게 쏠리는 눈과 귀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땅에도 큰스님은 참으로 많이 계신다. 다만 큰스님들의 큰 가르침을 대중 속으로 전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표현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나는 탁났한 스님을 통해 너무나 명료하게 읽었다. 그것은 우리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불교가 무엇보다 먼저 극복해야 할 문제는 언어의 벽이다. 언제까지 한자의 난해함에 갇혀 있어야 하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도외시할 것인가?

우리들의 큰스님이 전하는 훌륭한 가르침들을 쉬운 일상 언어로 풀어 세계인이 함께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한국 스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배웠다"고 감동하며 한국 스님 초청하기에 바쁠 것이다. 그리고 각국 유수의 출판사들이 한국 스님들의 책을 펴내어 돈도 벌고 정신문화 고양도 하려는 기획을 할 것이다. 외국 출판사의 초청을 받은 한국 스님은 강연(한국의 스님들은 무료강연이 아니면 나설 수 없다) 보살심을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때마다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이야말로 인류를 구하는 가장 완벽한 길"임을 역설할 것이다. 그리고 걸지 않고 조용히 앉아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 수행을 가르칠 것이다.

수행공동체란 개념은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고 한국불교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착실하게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탁났한 스님이 이끄는 풀림 빌리지와 우리의 승가공동체 또한 다를 것이 없다.

한국불교는 말로만 세계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재발사와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세계화로 향한 문을 열어야 한다. 탁났한 스님의 방한에 달린 문제이지 가르침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방한은 국민대중에게 마음공부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고 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종단의 지향점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였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인터넷에 들끓는 반전 여론

국회가 25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연기한 데 이어 조계종 임시총회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중단과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민중일치로 채택했다. 급기야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이라크전을 '침략전쟁'으로 규정, 정부와 국회에 파병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국내외 반전 물결 속에 불교계 인터넷 자유게시판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불자들의 의견 표출이 뜨겁다. <편집자>

○...결국 '기름'인 걸 뻔히 아는데, 거여이 주먹질을 하고 나섰다. 부시의 주먹질에 후세인은 결사항전을 하겠지만, 세상은 다시 전쟁이라는 역사를 쓰고 말았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물론 세계 중지가 더 활발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빚어지는 걸 보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누군가 말하길,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길어지면 땅의 신이 피를 부르게 된다고 했다. 인간의 평화는 오래갈 수 없는 것이, 인간 자체가 전쟁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일 것이다. 참군들은 그 욕구를 억제하는 인내력이 약할테니. 미국의 주먹질은 결국 기름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과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쟁의 끝을 생각해 본다. 이기는 자도 지는 것이고, 진 자도 지는 것이기에 이긴 자의 잔치도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ID: 거사람>

○...지난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에서 발표한 이라크 파병철회촉구 성명서는 너무도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나 일반 국민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파병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스님들과 불자들은 어떠한 이유든 전쟁을 묵인하거나 찬성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낱 미물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불교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전쟁을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는가? 불교도가 가장 앞장서서, 가장 소리 높여 반전과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ID: 보현심>

○...아침 조간신문에서 처참하게 부상당한 어린 소녀를 안고 슬퍼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발목이 잘려나간 채 정신을 잃은 소녀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지구 건너편에서 단지 바라만 보고 슬퍼해야 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깃들기를 간절히 서원해 봅니다. <ID: yooosk>

○...이라크전이 시작되고 토요일을 맞아 곳곳에서 반전시위가 있었다. 몸이 찌뿌드드하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나도 집회에 참석했다. 시청에서 진행된 반전 행사에는 1천여 명 정도가 모여 '반전 평화'를 외쳤다. 특히 탁났한 스님이 오셔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안의 평화'는 너무 작아 보였다. 광화문에 도착하니 호순이 미선이 추모행사와 반전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엔 너무 조금 모인 것이 아닌가, 씩씩하기도 했다. 시청 행사에서 가수 안치환 씨는 "세계는 몇 백만 명이 모여 반전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몇 천 명이 모여서 전쟁을 막겠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전쟁을 막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파병하는 것만은 마고 싶다. <ID: 조희운>

○...부처님은 로히니강의 물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가?"라고 외치며 전쟁을 막으셨다. 또 "도시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폭군 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라고 하시며 폭력은 폭력을 거듭으로써만 멈출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전쟁과 살생을 반대하고 자비와 평화를 가르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인이라면 당연히 무고한 양민들을 살육하는 부시의 침략전쟁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파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ID: 이해호>

독자 투고 각목스님 주장에 대한 반론

간화선에서 말하는 불성, 본래면목, 진여 등은 아트만적인 개념이 아니다. 니르바나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일부 사람들이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성을 아트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지 가르침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말은 도무지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다.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는 뜻인가? 열심히 정진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열심히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깨치면 다 된다는 식이라는 말은 또 무슨 얘긴가? 불교의 목표는 누가 뭐래도 깨달음에 있다. 깨달음을 목표로 정진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어찌구무없는 소리가 아닌가?

불성, 진여 등은 아트만적 개념 아니다

인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인가받았는가? 인가를 중요시한 것은 자칫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 수행을 중단하고 타락할 것을 우려해서다. 그것은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다. 간화선이 본인의 근기에 맞지 않으면 다른 수행법을 택하면 된다. 진지한 구도자라면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니면, 간화선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일까? 간화선은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각자를 배출해내며 검증받은 수행방법이다. 이처럼, 각목 스님의 간화선에 대한 모든 비판은 문제없는 곳에서 공연히 잊지도 않은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붓다뉴스(buddhanews.com)' 열린마당, ID: '햇중'

광명실상 성취기도법을 알려며...

광명 실상 성취 기도법이란 인간은 전생윤회(轉生輪廻)하면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생명이며, 실상 완전 원만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기도법입니다. 불자님께서 이 진리를 일깨워주기만 하여도 모든 것을 불자님 스스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깃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상실하면서 형식적인 염불이나 특정, 기도로서 인간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리가 없는 신앙 생활에 의한 기복 신앙과 타락 신앙으로 인간을 구제할 수 없으며,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상실한 신앙은 정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무한한 생명과 상통하고 있는 보배오 왕국이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처님의 자서, 영원한 생명, 실상 완전 원만한 무한 생명인 것을 깨닫고, 전지 만물에 대한 감사와 보은, 공양과 보시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실천 생활을 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며 스스로 위대한 지혜의 보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광명 실상 성취 기도"를 성실히 수행하는 불자님에게 현실 세계의 온갖 마음·다툼·슬픔·재난·불행·질병 같은 것은 마음에 들어 오지 않고 오직, 행복·번영·희망·건강·성공만이 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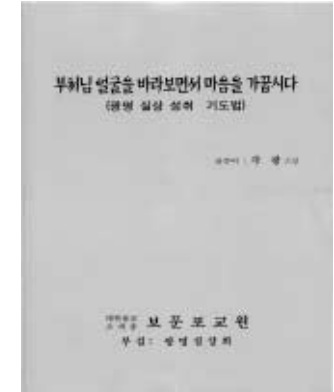
저희 광명 실상회에서 발간한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꿈시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새로운 마음을 내시어 "광명 실상 성취 기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정정법신 이므로 "생명의 실상"으로 진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번영·희망·건강·성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죄와 악과 병과 재난과 고통은 악몽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저희 "광명 실상회"에서 펼치고 있는 "광명 실상 성취 기도" 수행을 지도 받으시고, 실행하시는 삶 속에서 진리의 광명 이상 중만 하게 나누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명실상회

광명실상회 전화 (031) 257 - 356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86-14, 6/4 회장 진관 법사 합장

보문포교원

보문포교원 전화 (051) 864 - 37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 (한신상가 5동 501호) 원장 각 광 합장



※이 광고를 보시고 저희에게 오시기나, 위 사진 밑에 써서 광명실상회에 편지 보내 주시면 꼭 무료 불교 보시 해 드리겠습니다.

봉은승복사 할인매장

불법승 상보에 귀의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시봉드는 마음가짐으로 중사해 온 저희 봉은승복사가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님 및 불자들의 어려운 제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전체품을 할인(30%)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직접 내방하시어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안내, 가격안내, 모직혼방, 1. 두루막 110,000원, 2. 장삼 180,000원, 3. 통방바지 140,000원, 4. 적삼바지 100,000원, 5. 개량복 [소월인금액], 6. 조끼, 바지 50,000원, 7. 반가사 50,000원, 8. 대가사 80,000원, 9. 책가방 25,000원, 10. 티셔츠 20,000원, 11. 바지 25,000원

봉은승복사

전화: 0531421-5451 / 0531424-5462, 휴대: 011-821-54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2-18

